친환경 농특산물 다모였네

제5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나주에서 24~29일

'제 5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친환경 생명농업 세계로! 미래로!- 녹색의 땅과 소비자의 만남'이란 주제로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다.

전남도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관을 비롯 생명예술관, 어메이징관 등 11개 주 전시판매관과 부 전시장, 와인만들기·친환경 나무곤충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는 30개 이벤트 및 체험행사장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관은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66종 7만5천점이 전시·판매된다.

특히 수출 농산물 전시·판촉관에는 생산업체와 농가가 참여해 7개국 13명의 해외 바이어와 수출계약 85억원을 목표로 수출상담을 하게 된다.

또한 농업박람회 기간 동안 45인승 대형버스 등 4대의 무료 셔틀버스가 광주~행사장, 나주역~행사장 간을 1~4시간 간격으로 운행된다.

한편, 지난해 농업박람회는 82억원의 농특산물 수출계약을 성사시켜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농산물 판촉행사로 자리를 굳혔다. /송기동기자 song@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성금 기탁

공무원노동조합 곡성군지부는 심청축제기간 중 조합원들이 휴게소를 운영해 마련한 91만3천700원을 지난 11일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곡성군청년회의소에 기탁했다. 〈사진〉

전남 도내의 불우이웃에 대한 안과수술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운동은 지금까지 816명이 치료 혜택을 입는 등 곡성군의 상징적 사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공무원노동조합 곡성군지부 관계자는 "적은 액수의 금액이지만 많은 이웃들이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우주센터 진입로 공사중단 위기

고흥 신금~하촌 구간 확·포장 하청업체 부도

공정률 20% 부진…위성발사 계획 차질 우려

고흥 나로도 우주센터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금~하촌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하청업체 부도로 공사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신금~하촌간 확·포장 공사는 우주센터 진입로 확보를 위해 지난 2004년 5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착공했으며 지자체와 관련 업체에서는 준공 시기를 인공위성 발사에 맞추기 위해 공사단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공사구간 일부의 토지보상 협의가 미뤄지는 등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 전체 공정률 20%의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하청업체인 P토건의 부도로 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될 처지에 놓여 있다.

부도를 낸 P토건은 서울에 본사를 둔 전문건설업체로 토공과 구조물에 대해 일괄도급을 맡아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발파업체를 비롯한 장비, 자재, 유류 등을 납품해 온 업체들의 피해금액은 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대해 부도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 파견된 박모(50)씨는 "원청업체에서 피해 금액 해결에 나서야 후발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면서 "현장 피해자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즉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라도 남은 공사에 대한 포기각서를 써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청업체 관계자는 "후발업체 선정시까지 3개월 정도 공사 중단은 불가피 하나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17일로 예정된 피해업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관계자는 "진입로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뜻하지 않은 하청업체 부도로 공기 차질이 우려된다"며 "신금~교동 구간이라도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황토 고구마 수확 손길 분주

나주시 세지면 들녘에서 황토 고구마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이곳 고구마는 양질의 황토밭에서 재배돼 알이 굵고 담백하면서 단맛이 높아 대도시 소비자로부터 인기가 높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함평 축산폐수 처리업체 2년간 2억원 부당 징수

함평군 축산폐수 수집· 운반 업체가 지역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 2년간 처리비용 수억원을 부당 징수한 것으로 드러나,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함평군에서 축산폐수 수집 운반을 하고 있는 M 정화사는 관계법령과 군 조례에 정해진 요금(1t당 수집 운송비=허가 축산농가 1만원, 신고 농가 9천원)보다 2천500원~3천500원 많은 1만2천500원~1만 3천500원까지 받아 2년 동안 2억여원을 불법으로 챙겨왔다는 것.

또 이 업체는 군에서 허가받은 수집 운반차량 허가 t수 (15t, 20t) 보다 최고 4t까지 많은 폐수를 농가에서 수집하면서 추가 요금을 받았으나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함평군 환경시설사업소에는 허가량에 대한 대한 처리비용만 부담해 군 재정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군 관계자는 "유류비 부담 등으로 인해 수집 운반비용에 대한 적정 가격 산정이 애매하다"며 "금명간 해당 업체와 축산 농가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 환경시설사업소의 1일 축산폐수 처리량은 100~130여 t으로 군 축산농가에서 1일 배출되는 180여 t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고창미래포럼' 23일 개최

제 26회 고창 미래포럼이 군민과 각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3일 오후 3시 고창 청소년수련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오지철 회장이 강사로 나서 '지역관광 특화산업 육성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우리 지역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으로, 많은 군민과 기관 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광산구 '인구 50만명 시대' 대비

대대적인 공직혁신 나섰다

국·과·계 없애고 팀제 도입

직원 혁신경진대회 열기로

광산구가 인구 50만명 시대에 대비해 대대적인 공직사회 혁신에 나섰다.

광산구는 이를위해 최근 수직적 계급구조인 국·과·계를 해체하고 수평적 조직인 팀제를 도입했으며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갑길 구청장〈사진〉은 "광산구를 인구 50만명의 서남권 중추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자와 관청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50만명 시대를 대비해서 혁신과 교육사업, 관광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구청장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관행과 인습, 타성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 길은 교육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전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학습기반 마련에도 주력할 계획이며 이 일환으로 우선 5개 동사무소에 '영어교실'을 개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 구청장은 또 "민선4기 들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고, 을지연습 광주시 최우수구, 제1회 방재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며 "앞으로도 광산구를 변화시키고 주민복지를 증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7월 말 현재 31만명을 넘어섰으며 수완지구 등 대단위 택지 개발과 공장 신·증설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5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벌교에 주암호 수돗물 공급

노후 수도관 일제 정비…연말부터 본격 급수

보성 벌교에 주암호 수돗물이 공급된다.

보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개월간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받아 벌교 전역에 시험급수를 실시한 뒤 연말부터 본격적인 급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수도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현재 시공 중인 벌교읍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벌교지역은 과거 농업용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한 지방 상수도가 주된 수돗물로 공급돼 주민들로부터 수질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보성군은 이같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수돗물 급수체계를 주암호 광역상수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벌교 일부 지역에만 주암호 상수원이 공급됐으나 이번 급수체계 일원화 결정으로 벌교지역 전체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암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영동리 고분군 등 14건 나주 향토문화유산 지정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구석기 유적을 비롯해 다시면 영동리 고분군, 나주시 서내동 이로당 계문서 등 14건이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문화유산은 구석기 유물 등 선사유적과 마한, 백제시대 유적 각각 3건, 조선시대 유물 5건, 동사리동제 등 무형유산 3건 등이다. 특히 조선시대 도읍지였던 나주목에서 향리를 했던 당시 '아전'들의 계(契) 모임을 기록해놓은 이로당 문서는 조선후기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등 사료적 가치가 높다.

시가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앞으로 체계적인 보전과 보호대책이 추진된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